

변치않는 자아는 어디에도 없다



박래원 교수의 貪·瞋·癡 철학적 읽기(7)

2) 탐욕·분노와 자아환각

탐욕은 분명 욕망에 대한 지칭이지만, 모든 욕망이 탐욕은 아니다. 해탈하려는 욕망을 탐욕이라 할 수는 없다. '모든 언어를 조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연기 깨달음의 연장선에 있다. '탐욕'이라는 말도 연기적, 다시 말해 조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두 유형의 욕망을 그 발생조건에 따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충족시켜야 할 욕망과 풀려나야 할 욕망을 '조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간이 생물학적 욕구의 충족에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계기는, 사유능력과 언어능력 및 자아의식의 발달과 맞물려 있을 것이다. 고도의 사유능력과 언어능력, 이에 상응하여 독특하게 발달한 자아의식, -진화과정에서 이들이 뚜렷해지는 시점에서, 이 세 면모를 조건으로 삼은 독특한 욕망이 발생하여 발전해 온 것으로 보인다. 독특하게 강화된 '자아의식에 의거한 욕망', 분석·판단·평가하며 기억하고 예상하는 '사고능력에 의한 욕망', 개념의 체계를 만들고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언어능력에 의거한 욕망' -인간의 이러한 욕망은 생존과 번식의 생물학적 욕구의 수준과는 분명 차이를 달리한다.

생존과 번식 충동에 따른 생물학적 욕망을 1차 욕망, 사유·언어·자아에 의해 발생한 욕망을 2차 욕망이라 부른다면, 지금 우리의 몸은 진화과정에서 수립된 생물학적 1차 욕망과 인간적 2차 욕망의 궤적들을 모두 계승하고 있다.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강력한 오염과 해악의 면모도, 독특한 희망과 특유의 가능성도, 모두 2차 욕망에서 발생한다. 붓다는 인간 욕망의 이러한 이중성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희망과 긍정의 면모를 구현하는 길을 설했다. 따라서 '불교는 모든 욕망을 버려라'고 한다'는 식의 이해는 비연기적 오독(誤讀)이다. 1차 욕망이든 2차 욕망이든, 욕망은 크게 두 유형이다. 하나는 '유익한 욕망·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해로운 욕망·욕구'이다. 탐욕은 명백히 후자에 속하는 욕망이다.

결핍을 채우려는 충동을 '욕망'이라고 하고(욕망과 욕구라는 용어는 굳이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욕망은 '생존과 번식' 본능에 연루되어 있다는 생물학적 시선도 수용해 보자. 그리고 욕망을 '1차 욕망과 2차 욕망' 혹은 '생물적 욕망과 인간적 욕망'으로 구분하자. 1

차 욕망 혹은 생물적 욕망은 생존과 번식의 결핍을 채우려는 충동으로서, 이 욕망은 결핍상태만 해소되면 그친다는 것이 특징을 지닌다.

인간의 욕망도, 일차적으로는 '생존과 번식'의 본능충족과 관련된 감각의 결핍에서 생겨난다는 점에서는, 생물적 1차 욕망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인간의 욕망은 생물적 결핍이 해소된 이후에도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허기를 느낀 사람이 라면을 먹을 때 옆에서 아는 사람이 비싼 요리를 먹는 것을 보면, 그는 라면으로 배를 채워 식욕이 해소되었지만 만족스러워 하지 못한다. 추워서 낀 옷을 입었는데 친구가 고가의 명품을 걸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비록 춥지는 않지만 옷에 대한 욕망은 해소되지 않는다.

생물적 감각 결핍이 충분히 해소되었지만

'불변자아'에 대한 의식은 본능 탐욕, 우회적 자아 본능서 비롯

관련된 욕망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인간 특유의 강한 '자아의식' 때문이다. 사유능력과 언어능력에 의거하여, 타자와 구분되는 자아를 '인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인간이다. '자아를 인식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자아를 개념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한 사람이다'라는 개념적 인식에 의해 자아를 경험하는 것이 인간이다. 개념적 경험에 의거한 인간의 인식적 자아감은, 여타 생물들의 본능적 자아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진화과정의 그 어느 단계부터인가 뚜렷해진 이 독특한 자아의식과 자아감은, 논리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도의 사유능력과 맞물려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뇌의 발달과정에서 본다면, 영장류 인간의 뇌에서 목격되는 대뇌 신피질의 형성과 구조를 말한다.

공정으로 찬탄하던 부정으로 비판하던, 인간의 행보를 관통하는 거대한 허구는 '불변자아의 관념'이다. 인간의 자아의식은 '불변의 자아'라는 관념을 본능처럼 품고 있다. 자아 혹은 자아 안에 변치 않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신념, 정신이든 물질이든 그 변치 않는 것이 바로 자아의 핵심이고 본질인 것이다. 그리고 그 탐욕은 '강한 이기적 자기중심성' 무한 증폭 '노예적 의존성' '무지의 고착'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아침에 아래에서 수행하는 사람. 변치 않는 자아는 없음을 알아야 탐욕을 끊을 수 있다.

다만, 인간은 그것으로써 자아감을 충족시켜 동요 없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불변의 그것'에 대한 경험이야말로 자아감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인간이 자아 내지 존재라고 부르는 것 그 어디에도 불변의 것이 목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특수한 문제가 발생한다. 인간은 자기를 재인식하는 강한 자아의식을 지녔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아를 확인하여 뚜렷하고 안정적인 자아감을 경험하려 한다. 만약 불변의 자아가 실제로 있다면, 이 자아감의 확보는 쉽게 성공할 것이다. 그 불변의 자아말로 선포하고 안정적 인 자아감의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아의 존재를 불변의 안정으로 경험하고 싶지만, 변치 않는 자아는 어디에도 없다. 자아를 불변자아에서 확인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하게 마련이다.

이 특수한 인간적 사태에 대응하여, 인간은 발달한 사고능력에 기대어 우회적 해법을 선택한다. 탐욕에 관한 붓다의 가르침을 종합할 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목격된다. '감관쾌락의 보존' '소유' '비교'를 통한 자아확인이 그것이다. 탐욕이라는 욕망은 이러한 우회적 자아확인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그 탐욕은 '강한 이기적 자기중심성' '무한 증폭' '노예적 의존성' '무지의 고착'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불변자아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첫 번째 방식은 '감관쾌락의 보존을 통한 자아확인'이고, 이 과정에서 탐욕이 발생한다. 니카야·아함에서 모든 붓다 설법의 출발점처럼 등장하는 '감관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이에 해당한다.

동물의 본능적 자아감은 오직 감각의 1차적 지각에 의하여 성립되며, 감각의 생물적 결핍을 해소할 때 발생하는 쾌락감을 조건으로 한 생존 자아감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인간의 자아감은 1차 지각을 재가공한 2차 지각인 인식적 경험들에 의해 수립되며, 동물과 같은 1차적 생존 자아감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한 사람이다'라는 개념적·인식적 자아감에 의해 자아를 확인하기 때문에, 감각의 생물적 결핍이 해소될 때 느끼는 쾌락을 단지 생존 자아감 차원에서 경험하지 않는다. 감각의 결핍이 충족될 때 인간은, 생존 자아감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나는 ~한 쾌락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적 자아감을 확인한다. 쾌락이 생존 자아감을 확인시키는 조건에 그치지 않고, '인칭의 개념적·인식적 자아'를 확인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개념적·인식적 자아감은 동물의 생존 자아감에 비해 지속적으로 자아의식적인 자아감이다. 기억하고 비교하며 자아를 재인식하기 때문이다.



항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흘러간다

"벗들이여, 일체 모든 것은 타고 있다. 일체 모든 것이 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벗들이여, 눈이 탄다. 눈의 대상이 탄다. 눈이 닿는 곳, 눈에 보이는 일체 모든 것이 타고 있다. 무엇에 의해 타고 있는가? 탐욕, 늪음과 병들, 죽음에 의해 타고, 걱정과 슬픔, 고통과 번뇌, 절망과 공포에 의해 끊임없이 불길이 치솟고 있다고 나는 말하는 것이다."

석가는 이어서 귀와 코, 입과 몸이 타고 있다며 같은 뜻의 말을 거듭하고 있다. 이상의 말씀은 <상우부경전>과 <잡아함경>, 그리고 <울장>에 기록돼 있는 석가의 말씀이다. 석가가 깨달음을 성취한 붓다가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상두산(象頭山)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 설법했다 해서 유럽의 불교학자들은 이 설법을 '산상의 설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이 '산상의 설법'을

리석으며 노여움의 불길을 완전히 소멸시킨 상태를 불교의 최고 이상향인 열반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고 있는 존재다. 석가의 말씀처럼 쉽지가 않다. 어느 의사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뇌를 100으로 보았을 때 그 중 5%만이 이성적 사유의 바른 판단을 줄기 뿐 그 남은 95%는 지극히 동물적이어서 음식을 보면 먹으려고 하고 다른 이성을 보면 짹짹 혀를 하려 허둥대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텔레비전을 통해 보는 동물의 세계처럼 인간의 세계도 알고 보면 지극히 동물적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동물보다 우월하고 동물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결국 5%의 뇌의 활동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부처님이 '산상설법'을 통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길이 타고 있는 존재라고 규정하는 다음, 눈이 탄다, 귀가 탄다, 코와 입이 타고 몸과 의식작용이 타고 있다고 말

집념은 인생 성공과 행복의 열쇠 집착은 아무 쓸모없는 삶의 쓰레기

예수의 '산상수훈'에 견주려는 학자들도 있다.

이 '산상의 설법'이 있기 이전까지 석가는 욕망과 욕구의 충동을 갈애(渴愛)라고 하여 목마름으로 비유해 설명했다. 처음으로 타오르는 불꽃에 비유해 연소라는 말을 쓰고이기도 하다.

불교의 최고 이상향으로 일컬어지는 니르바나의 의미도 '불이 꺼진 상태', '연소의 소멸'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열반의 참 의미를 경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상우부경전>과 <잡아함경>에 있는 부처님의 심대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리불과 그의 벗인 외도가 나는 대화이다.

"친구 사리불이여, 흔히들 열반이라 말을 즐겨 하거니와 그 열반의 참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벗이여, 열반이란 탐욕에 의한 불길의 소멸, 노여움에 의한 불길의 소멸, 어리석음에 대한 불길의 소멸을 일컬어 열반의 참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탐내고 어

썸하졌는가. 타고 있는 것은 눈, 귀, 코, 입 그리고 몸과 의식작용 뿐이 아닌, 그 대상이 되고 있는 물질들도 타고 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눈과 귀 등의 여섯 군데의 불길은 다른 외부로부터 접화되는 것이 아니라 탐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음을 불쏘려 하는, 식을 줄 모르는 집착심이 내부 한 구석에서 기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를 역할의 집착심이, 타는 불길의 가장 큰 장애임을 알아야 한다. 집착해 집요하게 한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되면 몸도 마음도 망가지게 마련이다.

집념이 일을 성사시키는 성공과 행복의 열쇠라면 집착은 구걸하는 거지의 눈곱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삶의 쓰레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여 집념으로 이뤄내지 못한 일을 집착이 묻고 늘어질 일이 아닌 것이다.

그대에게 다시 말한다. '열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삶의 쓰레기를 마음고생하지 말라. 집착이 탈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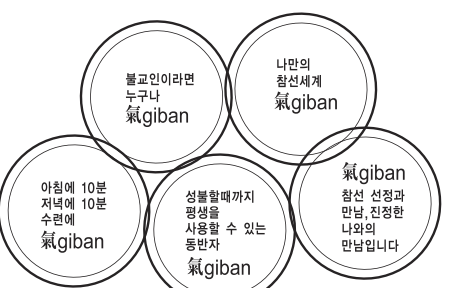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mm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뻣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이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무르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